

고려시대 무용

- 예술품, 고려기녀, 궁중정재,
- 정재의 철학적, 상징적 의미

1. 고려시대 역사적 상황

* 고려의 건국

- 태조 왕건: 궁예의 신하가 되어 영토확장에 큰 공을 세우고,
궁예의 실정으로 신하들이 왕건을 국왕으로 추대
-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여 민족 재통일 이룸

2. 고려시대 사상과 문화

* 역사서 편찬

- 삼국사기: 김부식
 - :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 : "마땅히 ... 한 나라의 역사를 만세에 남겨 주는 교훈으로 하여 밝은 별과 같이 밝히고 싶다."
- 삼국유사:
 - : 불교적 신이사관, 단군 신화 및 각종 설화와 전래 기록 수록
 - : "옛 성인들은 예와 악으로 나라를 흥하며 번성하게 하고 제왕들이 일어날 때는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있는 뒤에...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태어났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 불교정책

→ 종교와 철학으로 정착.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

→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불교행사 개최

→ 토착 민간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행사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에게 제사

→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는 제사

* 도교 사상

→ 산천 숭배 신앙, 신선 사상

→ 음양오행사상

→ : 도교와 민간신앙 및 불교가 어우러진 행사

3. 고려의 예술

* 청자와 공예

- 자기공예 발달
- 장식 없이 순수 하늘색에 아름다운 선을 특색으로 하는 <비색 순청자>
- 자기 표면에 음각되고 무늬가 새겨진 <상감청자>

* 그림과 음악

- 도화원 소속의 전문 화원, 승려 중에서 우수한 화가 배출
- 고려시대 음악: 아악, 향악

- * 아악: 송에서 수입된 궁중음악. 주로 제사에 쓰임
- * 향악: 속악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고유 음악

4. 기녀(직업예술인 집단)

-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는 기녀들의 조직과 발전 -
- 기녀: 전통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존재했던 직업여성을 이르는 말.
 - : 춤과 노래로 각종 연희에 출연하여 지배층 남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
 - : 시, 서, 화는 물론, 예절과 가무를 습득.

1) 삼국시대 ()

- 궁중의 향연이나 귀족의 연희에 가무가 빈번히 등장.
(무용총 등 벽화에서 잘 드러남)
- 직업적인 무용단이나 악단이 있었음.
- **고구려**: 춤과 음악은 전문적으로 전담했던 교방 내지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 기녀가 가무를 담당.
- **신라**: 진흥왕(6세기 중) 때 설치된 <무척>, <가척>, <금척>
 - > '**척**': '장이', '잡이'
 - > <무척>: 춤잡이, <가척>: 노래잡이, <금척>: 가야고 잡이

2) 고려시대 ()

*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남.

(1) 관에 적을 둔 기녀로서 궁중에 설치된 교방 소속의 <교방기>와 지방관청에 적을 둔 <지방기>로 구분

* < >는 궁중의 가무를 담당

- 교방 궁녀가 백여명을 넘기도 함
- 각 지방의 무녀와 관기 중에서 색예가 뛰어난 기녀를 뽑아 교방기를 보충
- 미와 재예를 겸비한 관청의 기녀와 관비로 이루어짐.
- 여악의 담당기관이며 교습소였던 교방을 통하여 가무를 전문적으로 습득

* < >는 교방기와 같은 관기로서 지방관에 적을 둔 기녀.

- 지방관이 타향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종드는 일.
- 가무로서 지방관들을 위로
- 외국 사신의 접대와 국가적인 대규모의 연희에 참가해야 하는 의무

(2) 관에 매이지 않고 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 >

→ 관기처럼 가무를 습득하여 나레나 사대부들이 베푸는 대소연회에 참가

(3) 사가에 기거하면서 관기와 마찬가지로 춤과 노래를 익혀 사대부들을
받들던 < >

→ 주인이 베푸는 연회에 나아가 춤과 노래를 함

→ 사대부들은 가기를 두는 것을 상례로 여김

(3) 재와 색과 미를 갖춘 남자들이 기녀와 같은 일을 하는 < >

→ 기녀와 마찬가지로 궁중에 머물며 가무를 담당

→ 조선시대까지 존속

→ 무동 정재가 바로 남기의 존재를 말해줌.

3) 조선시대 (기녀의 성숙기)

* 고려시대의 교방을 그대로 물려 받음

- 태종 6년(1406)에 설치된 의녀제도
- 기녀의 교육과정은 매우 엄격
- 15세에 기안에 올라 가무 학습
- 서화도 익힘

- 일류 기생이 되려면 사범들에게 호된 기합을 받으며 어려운 전수과정을 감수
- 한말까지 그대로 지속

4) 조선 후기 ()

- 조선왕조의 몰락으로 교방청 폐지
- 관기들을 서울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으로 흩어짐
- <기생조합>을 조직하여 요정이나 부자들의 생일 잔치나 회갑연에 불러가 가무함으로써 주연에서 추어진 예술적인 <_____>이 된 것

* <사랑채춤>을 통한 춤의 혁신

* 좁은 공간에서 추기 때문에 춤의 형식이나 동작 표현에 있어서 혁신이 일어남.

- 첫째, 춤의 내용이 종교적 의미나 의식적 의미보다는 음악적인 의미나 예술적 내용으로 변화
- 둘째, 집단적인 춤에서 개인적인 춤으로 바뀜
- 셋째, 동적인 춤에서 정적인 춤으로의 변화

→ <조선미인보감>에 따르면,
1900년초에 서울에는 <

>을 중심으로 <기생조합>이 생겨남

→ 당시 기녀의 수: 서울 200명, 평양 156명, 대구 120명 기록

* 기방춤의 종류: 서울

→ 정재출 42 종류, 승무, 검무, 입출, 등.

: 지방

→ 승무, 검무, 입춤, 남도속무

→ 정재춤은 추지 않음

→ <교방춤>은 교방이 폐지된 후 기녀들이 해체되며 <기생조합>에 가입하였으며, 개인적 멋과 높은 수준의 춤들로 축소하여 공연, 발전

5. 당악정재의 절차와 무구

1) 절차:

(1) 기(도입부)

--> 죽간자와 앞으로 나와 초입배열하고 춤의 내용을 구호나 치어로 하고 무원을 인도

(2) 승(연결부)

--> 무원의 노래, 무원의 춤이 본격화되고 창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형을 만들기도 함. (향악정재와 동일)

(3) 전(중요부)

--> 왕모나 선모가 구호나 치어를 하는데 이는 춤의 내용이나 주제
--> 정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4) 결(종결부)

--> 죽간자가 이러한 정제를 보여드리게 되어 기쁘다는 식의 구호를 하고 무원들을 인도하여 퇴장.

2) 대표적 의물

* 의물: 정재를 연희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품과 소도구

- 1) **2개:** 대나무로 만든 긴 장대로 붉은 칠을 하며 등나무 조각으로 아래 끝을 감싸 매고 잡물을 들인 쇠로 장식.
 - > 춤을 추는 무원들을 제일 앞에서 이끄는 중요한 역할
 - > 무원을 이끈다는 의미는 수장의 권위를 상징하고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상징성 내포
- 2) **인인장 2개:** 인인장은 의물 중 제일 앞에 서며 두 명으로 의물을 이끄는, 여기들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
 - > 지휘봉과 같음.
 - > 인인장 상단에 복숭아 열매는 군왕의 성군의 정치로 복숭아 앞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의미
 - > 군왕에게 성군정치에 대한 또 다른 표현

3) 정절 2개: 대자루 꼭대기는 나무로 만들어 모두 붉은 칠을 하고, 빨강, 초록, 검정 비단으로 세 조각 휘장으로 되어 있음.

→ 칠성을 상징하고, 사시운행을 주관하는 칠성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모습을 상징.

6. <당악정재 악장 가사 내용>

1)

- 봄을 상징하는 내용
- 중요한 키워드
- 단순한 봄의 계절적 의미가 아닌, 태평성대 의미 내포
- 봄: 꿈틀거리며 탄생하는 만물, 생의 시작, 태평성대의 시작
- 오행중에서 나무에 해당. 생명을 촉진하는 기능, 농사의 근본
- 봄이 온 것은 만물의 풍요로움을 예시

2)

- "신선의 수는 한없는 것이거니 임금님께 천만년의 수를 드리도다",
- "고령을 축원하기를 하늘에 뒤져 늙지 마시라" 등의 표현에서...

7. 궁중무용의 반주 악곡

<아악>

- 역대 궁중에서 나라의 제사에 연주되어온 악
- 사상적인 색깔이 짙은 정대한 음악
- 신비스러운 선율
- 웅장미, 현란미, 독특한 선율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유장미
- 기본형이 거의 변함이 없이 반복

<장단 종류>

1) 상령산 장단

- > 매우 느린 20박 박자의 가장 느린 장단

2) 중령산 장단

- > 상령산 보다 빠른 템포.
- > 상령산 보다 4도 높은 음역

3) 세령산 장단

- > <영산회상>의 세령산, 중령산보다 빠른 템포

4) 도드리 장단

- > <영산회상> 중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등이 있음
- > 빠른 6박, 경쾌함

5) 타령장단

- > 3분박으로 된 느린 4박자로, 때로는 빠른 12박자

6) 양청장단

- > 3분박으로 된 빠른 4박

7) 취타 장단

- > 3분박으로 된 보통 빠른 20박자

8) 길군악 장단

- > 3분박으로 된 보통 빠르기의 8박자

9) 수체선 장단

- > 3분박으로 된 느린 18박

8. 당악정재의 종류

1)

→ 정월보름날에 연등회에서 군왕을 축수하기 위하여 왕모가 선계에서 내려와 천년의 장수를 상징하는 반도(3천년만에 한 번씩 열리는 신선 나라의 복숭아)를 헌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재.

2)

→ 오래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춤

→ 임금이 술을 마실 때 올리는 가무악

→ 죽간자의 노래 :

"하늘이 좋은 복록(술)을 금잔에 부어주도다" "금잔에 부은 유한주 넘쳐 흐른다"

→ 임금이 술을 마실 때 중강을 창했던 것을 가무희로 확대시킨 것

3)

- 다섯 마리의 양을 타고 내려온 신선이 군왕을 송도하는 내용
- "옛 말에 다섯명의 신선이 오색의 양을 타고 한 줄기에 여섯 이삭이 돋은 수수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곳을 오양성이라고 불렀다."
- <죽간자>의 노래: "양의 수레를 탄 진선을 기꺼이 만나고" ... "완전히 함께 아름다운 좋은 벼의 상서 가리키며"

4)

- 의종 21년(1167)년에 상연하였다는 기록.
- 연희에서 주흥을 돕기 위한 가무희의 일종
- 양대로 나뉘어 포구희 놀이, 즉 용알을 포구문에 넣는 게임을 하는 것으로 구성
- 단순히 춤을 추며 군왕의 장수를 축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원들이 양대의 편을 나누어 용알을 포구문의 풍류안에 넣는 놀이를 하는 매우 유희적인 성격이 강한 정재.

5)

- 의복과 모자로 예쁘게 차린 두 명의 어린 소녀가 등장
- 모자에는 쇠방울을 달아서 움직이면 소리가 남
- 그들은 두 연꽃 속에 감춰져 있다가 꽃이 터진 후에 나타남.

→ 두 동녀가 부르는 내용:

“봉래산에서 내려와 연꽃 속에 있다가 임금의 덕이 크므로 이에 감동되어 춤으로 즐거움을 드린다.”

6)

→ 화려한 꽃춤

9. 궁중무용(정재)의 철학적, 상징적 의미

1) 음과 양의 기에서의,

→ 에너지, 생명, 호흡

→ 음양의 조화: "천지 사방에 음양의 소리가 갖추어져서..."

→ 양의 음이 음의 음을 낳고, 음의 음이 양의 음을 낳아,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 양의 음은 왼쪽으로 돌고, 음의 음은 오른쪽으로 돌아 음양이 합하여
< >를 이룸.

"역에 태극이 있으면 이것이 양을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

→ 자연계와 인간계의 본질일 인식하고 설명하는 개념

2) <악>을 통한,

* 5음계 (기본 음계)

→ (서양의 음: 도,레,미,솔,라)

→ 방위, 색깔, 감정 역시 5음계에 적용

음계	방향	색상	감정
궁(도)	중앙	황색 (중앙)	두려움
상(레)	서쪽	백색 (양)	성냄
각(미)	동쪽	청색 (음)	기쁨
치(솔)	남쪽	적색 (양)	즐거움
우(라)	북쪽	흑색 (음)	슬픔

3) 팔풍 및 팔괘와 춤절차의 상관성에서의,

→ 춤의 구성은 태극으로 시작되는 음양과 오행 사상, 그리고 팔괘의 형상이 춤의 인원 구성과 춤 패턴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

→ 무원의 움직임으로 음과 양의 대비를 보여주고자 함

→ 회무의 형상은 자연의 이치를 형상화한 것

→ < >:

“춤은 팔풍을 행하여 그 절주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자연의 법칙이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 춤의 절차가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음을 의미

<굴신: 구부리고 펴고>, <부양: 고래를 아래로 숙이거나 드는 것>,
<철조: 춤추는 공간의 위치>, <서질: 느리고 빠름>이 바로 춤에 있어 팔풍을 행하는 모습

**

**

- 음양의 세계관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삼라만상의 세계를 나타낸 것
- 음과 양은 물질의 궁극적인 본질이며, 그것들의 근원이자 통일체가 "태극"임
- 괘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이어진 선 (—)와 끊어진 선 (- -)인데,
이것은 일종의 범주로서 서로 반대되는 모든 현상과 관계성을 상징



팔괘(의미)	의미	육화대
감(☵)	양이 음사이에 빠져들어 험난함을 겪지만 중심이 양이므로 건실하여 잘 이겨냄 (물)	북
간(☶)	양이 아래의 어린 층을 보호하고 지켜서 그릇되지 않도록 굳건히 막는 괘상 (산)	북동
진(☳)	비록 음 밑에 양이 처했으나 밖의 음이 유순한데다 열려있으므로 밝은 생명이 생동하여 진출하는 괘. 비 내리는 봄철, 우레가 울리듯 만물이 힌차게 활동한다는 뜻.	
손(☱)	음이 강한 양들 아래세 처하여 공손히 따르는 괘상 (바람)	남동
이(☲)	음이 양 사이에 걸려 붙어 있으며, 불과 같이 환히 아름다운 문채를 드러내는 괘상 (불)	남
곤(☷)	초가을에 해당하는 지지. 땅이 초목의 줄기와 가지를 튼튼히 뻗게 하여 화육하고 신장함. (땅)	남서
태(☰)	음이 양들보다 위에 처하여 말이 노릇을 하여 기뻐하는 괘상.: 연못의 수증기가 피어오르듯이 사람의 입김이 도해져 흩어지는 모습으로 음기운이 밖으로 발산된다는 뜻.	
건(☰)	빛을 받아 위의 하늘로 밝은 생명이 움터 자라는 모습. 쉽없이 만물이 윤행함을 뜻함 (하늘)	북서

- <육화대>의 춤절차와 팔괘 -

<육화대의 춤자리>

건(하늘)

감(물)

간(산)

곤(땅)

이(불)

손(바람)

→ <악학궤범>: 무용수의 위치 변화 및 회무 방향 기록

→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름

→ 하늘과 땅이 마주하여 음양의 합을 이룸

→ 물과 불이 마주하고, 산과 바람이 마주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상

→ 무원들은 왼쪽으로 돌면서 괘의 자리로 옮겨 감 ()

-> 이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옮겨간 것으로 해석

→ 회무 이유: 늘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면 천지가 사귀지 못함.

< 보여지는 상징적 의미 >

- 포구락: 고려시대에 비롯된 춤 -

--> **풍류안**은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 그 곳에 공을 던져 넣음으로서 신선과 인간이 서로 교통하여 풍류가 넘치는 만남의 장 마련

--> 함은 속되지 않고 운치가 있는 일, 또는 자연을 즐겨 시나 노래를 풍치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을 말함.

-- > **채구**: 공(용알)은 나무를 깎아 붉은 칠을 하고 정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붉은 비단과 호록 비단을 각각 한 줄씩 꿰어 담음.

: 신선의 세계에 속한 물건이란 사실을 보여줌.

: 고구려 시조인 주몽과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모두 알에서 태어난 왕으로 난생설화의 주인공들로 포구락의 '용알'과 의미가 통함.

: 채구를 넣는 행위는 '수태', 반대편으로 나오는 것은 '출산'의 의미로 볼 수 있음.

: 왕실의 수태와 출산을 기원하는 정재

10. 당악정재의 특징

- 1) 춤동작의 다양함 보다는 춤 대열의 변화 및 방향, 그리고 무원들의 움직임의 방향을 더 중요시 여김 ->
→
- 2) 절제된 표현, 우아미, 화려함, 상체중심의 춤, 엄숙함
- 3) 무용수 개개인의 재능과 표현이 아닌 군무 안에서 최소한의 절제된 표현
- 4) 기승전결의 형식
- 5) 전문적 무용학습을 받은 기녀들에 의해 추어짐
- 6) 춤의 정신과 내용을 노래로 설명함: 창사, 치어, 치사, 구호
- 7) 한삼을 뿌리는 동적인 동작
- 8) 대칭적 공간구성, 대무형식, 원형무